



**제** 21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9월 3일 까지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남대천 물 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청 앞 사람의 다리와 남대천 일원에서 개최되는 물 축제는 반딧불축제 기간 주말동안에 열리며 물총과 물 풍선 등을 활용한 물싸움과 수중난타와 수중사물놀이 등 공연, 물 축구와 수중씨름 등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 자연 · 생명 · 미래를 비추는 반딧불이야... 같이 놀자

- 축제는 내달 3일까지

◇**읽는 재 · 잇 · 대**

올해는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새롭게'를 원칙으로 10대 핵심 전략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이제 (1)시작이다 21축제 개막 연출을 통한 정부지정 대표축제 도약을 비롯한 △축제 대표 프로그램 강화, △반딧불이를 연계한 야간 축제로 확대 전환, △글로벌 축제 면모 구축, △무주인의 생활과 인생스토리를 축제로 승화, △생태축제장 공원화 사업 지속 추진, △새로움과 감동이 어우러진 버라이어티 축제 도모, △군민이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체류형 축제 정착, △태권도원·반디랜드를 연계한 축제 관광 상품 제공, △소소비자 편의형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한다는 전략으로 △낮에도 반딧불이의 생태와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반딧불축제 주제관과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탐사체험,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1박 2일 반딧불이 생태탐험, △무주의 역사와 문화, 마을의 맛과 인심,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가는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어디든 새 · 례 · 대**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무주반딧불축제의

**정부지정 대표축제 도약 등 10대 전략 맞춰 프로그램 구성**

**올해 '스페셜 반디원정대' 추가 쉼터 재현 프로그램 통해 지역민들의 인생 스토리화**

**남대천 생명플러스 신설 반딧불이 먹이 방류 행사 진행**

메인이자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스페셜 반디원정대'를 추가했다. 함께 동행하는 곤충학자에게 반딧불이의 생태와 일생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참가 초·중학생들에게는 탐사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전통방식의 '여치집 만들기'도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들어진 여치 집에는 귀뚜라미를 담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등나무운동장에 야외심야극장(이동 영화 버스 활용)을 마련하고 산골영화관 무료 기

획 상영전을 통해 산골영화제의 고장임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디별 찾기'와 자연을 벗 삼아 힐링할 수 있는 '산골이동도서관', 드론을 배워볼 수 있는 '반디드론클럽', 첨단장비를 이용해 태권도를 즐기는 '태권도 VR관'이 마련된다. 쉼터 관혼상제 재현 프로그램을 통해 무주사람들의 인생을 스토리화하고 축제 속의 축제 실버데이를 마련해 군민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마을로 가는 축제를 확대·운영하며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과 연계한 무주투어버스도 운행한다.

◇**그래서 반 · 하 · 대**

다양한 변화도 시도된다. 남대천 송어잡기와 수상카페 등 환경축제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했으며 대신 '남대천 생명플러스' 프로그램을 신설, 반딧불이의 먹이인 토포다슬기와 치어 방류 행사를 진행한다. 전북도 무형문화재이자 반딧불축제 인기 프로그램인 나화놀이는 횡수를 늘려 진행하고 한풍투는 무주문화 체험 마당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무주문화원과 생활문화예술동회, 공예인협회 회원들이 마련한 무주 색 짚은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만나볼 수 있다.

나화놀이, 소망풍등날리기와 연계한 빛의 향연을 연출하기 위해 불꽃놀이를 부활시킨다. 남대천 야경과 밤비빔을 즐기면서 낭만을 이야기하는 '남대천 포차 다리'도 이번 축제의 새로운 풍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열차를 운행(임시주차장~축제장)해 방문객들의 이동편의를 돕는 한편, 종합안내소 옆에는 외국인 전용 안내소를 두고 외국인들의 축제 관람과 체험을 도울 예정이다. 태권도와 연계한 외국인 캠퍼 투어도 운영한다. 또 이전과 달리 각종 운영부스를 축제장 측면으로 배치하고 중앙에는 쉼터와 포토존이 어우러진 '자연의 나라 생태체험장'을 마련했으며 초가부스에는 박 농물을 올려 정감넘치는 고향의 풍경을 만들었다. /무주=전문선기자

▶ **황정수 군수 인사말**

“ 무주반딧불 축제는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를 소재로 개최되고 있는 환경축제로 2013년부터 5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지자체 브랜드 대상 축제부문 대상,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환경·체험·소득축제로서의 그 차별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위상에 걸 맞는 축제를 만들고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로도 당당히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에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함께 오시길 바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겠습니다. ”



▶ 반딧불 축제 볼거리 · 즐길거리 ◀

▲**반딧불이 신비탐사(반딧불이 서식지)**

반딧불이 서식지로 떠나는 신비탐사, 감잡한 밤을 밝히는 반딧불의 신비로움을 만끽해볼 수 있다. 반딧불이 전문가가 함께하는 스페셜 반디원정대가 운영되며 이 프로그램 참여한 초·중학생들에게는 반디탐사증을 발급해준다.

▲**반딧불축제 주제관(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반디관타지관', '형설지공관', '반디생태영상관' 등으로 구성되는 반딧불축제 주제관은 반딧불이의 생태를 관찰하고 낮에도 반딧불이의 발광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시설로, 반디관타지관에서는 3D체험도 가능하다.

▲**엄마 아빠와 1박 2일 반딧불이 생태탐험(무주종합수련원)**

반딧불이에 관한 생태교육과 신비탐사, 반딧불이 주제관 관람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무주종합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축제장과 반딧불이 서식지를 오가며 느끼는 무주반딧불축제의 재미와 감동이 최고다.

▲**별밤체험 · 산골영화관(등나무운동장)**

별밤체험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온 가족이 잔디 위에 누워 별자리를 찾아보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이다.

반디조명을 설치해 거대한 형설지공 공간으로 새 단장을 하는 등나무운동장에 서는 심야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마을로 가는 축제(6개 읍면 16개 참여마을)**

시골생활과 정(情)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 6개 읍면 16개 참여마을의 수려한 경관을 즐기며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술방울 공예와 대나무 부채만들기를 비롯해 모시잇 국수와 어제비 등을 맛볼 수 있다.

▲**나화놀이(남대천)**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 주민들이 재연하는 전통불꽃놀이로 대금의 선율이 맞춰 어우러져 한지 속 숲과 소금 등 재료가 타들어가며 내는 소리와 물 위에 어리며 바람에 흩날리는 불꽃들이 큰 감동을 준다. 올해는 6회로 확대 운영한다.

▲**쉼다리 밝기(남대천) - CNNgo 선정 한국에서 꼭 가 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

쉼다리(소나무와 솔가지, 흙으로 만든 다리)는 무주군민들이 탄생시킨 반딧불축제의 명물로, 쉼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통해 한 편의 인생스토리를 볼 수 있다. 우리가족 큰잔치(금혼식, 은혼식)를 진행하며 전통혼례와 상여행렬, 나화놀이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반딧불이 탐사



남대천 나화놀이



쉼다리 밝기